

‘식물과학계의 노벨상’ 금호국제과학상 역사 속으로 ...

글 | 이은정 _ KBS 과학담당기자 ejlee@kbs.co.kr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금호국제과학상’을 찾아보자. “2000년 제정된 국제학술상으로서 ‘식물과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기도 한다. 식물분자생물학 또는 생명공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공헌한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해마다 국제분자식물학회(ISPMB)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며 상금으로 3만 달러가 지급된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국내 기업이 제정한 유일한 글로벌 과학상

과학자들이라면 한번쯤 금호국제과학상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 상은 국내 기업이 제정한 상 중에서 유일하게 국제 과학계를 대상으로 하던 것이다. 국내 많은 기업들이 과학자들에게 상을 주고 있지만 대부분 한국 과학자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금호국제과학상은 국제 식물학계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거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과학상이었다.

해마다 5월말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국제과학상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1회 수상자는 카르티노이드가 다량 함유된 쌀을 개발한 잉고 포트리쿠스 박사였다. 2회는 애기장대의 계놈을 해독한 애기장대프로젝트팀, 3회는 유전체 발현억제를 연구한 데이비드 발콤, 4회는 중국계 미국 과학자 싱양탱이었다. 2004년 5회 수상자인 조안 코리 박사는 마침 한국 아이를 입양해 키우는 식물학자로 덕분에 아이의 고향인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며 아주 기뻐했다.

2005년과 2006년 한국을 찾은 스티브 텐슬리나 마크 에스텔 박사도 마찬가지였다. 수상자들은 6월초에 한국을 방문해 상을 받고, 생명과학을 주제로 학술 강연을 하고 갔다. 우리 과학자가 외국 기업이나 독지가들이 만든 상을 받은 일은 많지만 우리 나라가 외국 의 우수한 과학자를 발굴해 상을 주는 일은 드문 일이다. 그래서 금호국제과학상을 취재할 때는 항상 즐겁고 흐뭇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러한 일들이 모두 없어진다. 금호아시아나



수상자 간담회(2001)



시상식(2004)

그룹이 올해부터 이 상을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7회 수상자를 냈으나 박성용 명예회장이 작고한 뒤 슬그머니 사라지는 분위기다. 금호아시아나그룹측은 이 상을 유지하기가 못내 꺾여러운 분위기다.

박성용 회장 작고 후 그룹 차원에서 폐지 결정

고 박성용 회장은 식물 과학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그룹내에 금호생명환경과학연구소를 설립하고 금호국제과학상을 함께 제정했다.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던 박 회장은 평소 문화, 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았으며 식물학 분야는 국내 농업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에 직접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에 금호생명환경과학연구소를 설립하고 식물유전학 연구를 지원해 저항성이 강한 벼, 제초제가 필요 없는 잔디 등을 개발해 냈다.

그러나 2005년 5월 박 회장이 작고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금호생명환경과학연구소를 전남대에 이관했을 뿐 아니라 올해는 금호국제과학상마저 없애기로 결정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홍보실측은 “금호생명과학연구소가 (그룹에서) 없어진 마당에 수상자를 결정하고 상을 수여할 주체가 사라져서 부득이하게 금호국제



잉고 포트리쿠스(2000)



데이비드 발콤(2002)



상왕랭(2003)



조안코리(2004)

과학상을 시상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호생명환경과학연구소의 이전은 2005년 12월 실시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5년 12월 금호생명과학연구소를 전남대에 이관했다. 명분으로는 ‘산학협력’ 차원에서 대학과 기업이 연구소를 공동 운영한다는 것이었지만 내용상으로는 생산성도 없는 골치 아픈 연구소를 떠넘기는 성격이 강했다.

기업체가 ‘필요가 없어진’ 연구소나 상을 스스로 정리하겠다는 데 누가 막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 동안 이 상을 꾸준히 취재해 온 입장에서 섭섭한 마음이 먼저 들었다. 한국을 찾은 수상자들은 “이 상을 받으면서 한국과 금호그룹에 대해 새로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미국, 영국에서도 기초 과학인 식물학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이 식물유전학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상의 횟수가 거듭되면서 나중에는 국제 식물학계에서는 ‘금호’라는 이름이 꽤 알려졌다고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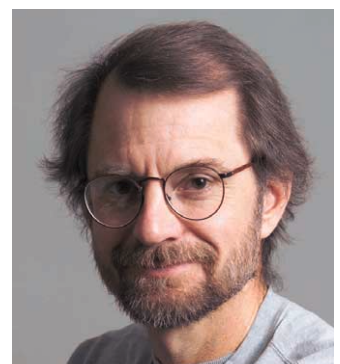
‘식물학계의 노벨상’ 국제적 인지도 포기 아쉬워

금호국제과학상을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는 고작 상금 3만 달러

금호국제과학상 역대 수상자 명단 및 업적		
1회	2000년 잉고 포트리쿠스	카로티노이드 다량 함유 쌀·개발
2회	2001년 오웬 화이트 등 애기장대	프로젝트팀 애기장대의 지능 해독
3회	2002년 데이비드 발콤	유전제 발현억제 연구
4회	2003년 상왕랭	식물 환경적응 관여 단백질 발견
5회	2004년 조안 코리	식물 호르몬의 식물생장 조절 규명
6회	2005년 스티븐 텐슬리	토마토, 감자, 벼의 유전자지도 작성
7회	2006년 마크 예스텔	옥신의 식물의 발아와 생장, 노화 조절

정도다.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이다. 그 돈으로 이만한 효과를 낸다면 기업이나 한국의 입장에서 이만큼 값진 일이 어디 있겠는가. 대기업이 3천만 원이 없어 상을 폐지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박성용 회장만큼 과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사람이 기업내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덧붙이자면 고 박성용 회장은 국내 기업인 중 예술과 과학을 사랑한 CEO로 존경을 받아왔다. 박 회장은 작고한 뒤에 더 빛이 나는 것 같다. 2006년 3월 박성용 명예회장은 서울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가 이미 작고한 사람에게 명예박사를 준 것은 처음이라 박 회장은 돌아가신 다음에도 화제가 됐다. 당시 박 회장이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유심히 봤었는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바로 금호국제과학상 제정이 박 회장의 지적으로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불과 1년 사이 박 회장이 만들어 놓은 상을 없앤다는 사실을 금호그룹이나 가족들은 제대로 알고 있을까. 특히 박 회장의 막내 동생이 바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을 이끄는 박종구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금호국제과학상이 명맥을 이어가고 원래 의도대로 식물학계의 노벨상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㉔



스티븐 텐슬리(2005)



글쓴이는 서울대 미생물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서울대의대에서 박사학위(생명윤리)를 받았다. 1995년 언론계에 입문 후 경향신문에서 10여 년간 과학분야를 담당했다.